



당진시의회 소식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제25호 | 2020년 12월 30일

※ 당진시의회 소식은 시민여러분께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됩니다.

■ 발행인 : 당진시의회 의장 ■ 발행처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소 : 31773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전화 : (041)350-4831 ■ 팩스 : (041)355-1901



당진시의회, 제78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시정에 관한 질문,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의결

당진시의회가 11월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7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위원회별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창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주요현안이 산적해 있어 의회의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당진시의 추진 업무 전반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시정 질문을 해주길 바라며, 2021년도 예산안도 세심하게 심의하여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 봐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에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도계분쟁의 대법원 최종변론과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6건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0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으며, 당진시의 현안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시정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기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조상연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의회로 제출된 안건 중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조 1,621억 원보다 578억 원(5.0%)이 증가한 1조 2,199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0년 당초 예산 1조 350억 원 보다 347억 원(Δ3.4%)이 감소한 1조 3억 원으로 편성돼 시의회에 제출됐다.



‘송산 가곡리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



당진시의회는 12월 29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송산 가곡리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당진시에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입주 추진 중에 있다.”면서“이에 각종 환경오염으로 우리 시민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송산면에는 환경 기초시설이 밀집해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우리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그와 같은 시설들이 국가적으로 반드

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불편함과 건강을 잃는 아픔도 묵묵히 견디며 살아왔다.”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지건은 송산면 가곡리 일원에 매립면적 약 75,000㎡, 매립용량 약 2,200,000㎡, 매립고 50m에 달하는 또 다른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17만 당진시민과 지역 주민은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가곡리 마을의 한 가운데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인접한 곳이며, 만약 이곳에 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선다면 지역과 주민들, 당진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과 송산면의 주민들을 대신해 송산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절대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하나, 당진시의회는 송산 가곡리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을 17만 당진 시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하나, 주식회사 지건은 송산 가곡리에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하나, 당진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불허하고, 당진시민의 불안감이 해소 되도록 책임 있는 행정과 역할을 다하라!”

제77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 동의안 등 위원회별 총 23건의 안건 심의·의결

당진시의회가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7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조례안, 동의안 등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별 세부안건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의 ▲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2021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 ▲사회복지과,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외 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자원순환과,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건축과,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안 외 2건 ▲토지관리과,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



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이다.

최창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상정된 모든 안건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잘하는 부분은 지지와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주고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명희 의원

질문내용 ▶ 우리지역에 맞는 독창적인 상징물 이미지 창출과 이색적인 상징물 거리 만들기 계획 등 상징물 활용과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내용 ▶ 동부대로 등 14개 구간의 소나무 가로수 조성, 시 캐릭터인 당학이를 활용한 교량 상징물 및 웹툰을 제작하였으며, 당학이와 당진시 마크를 활용한 가로등 설치, 면천면 일원의 진달래 동산, 진달래를 활용한 두견주 생산 등이 있습니다. 시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특화거리 조성, 특화 조형물 설치 등은 다소 부족한 현실입니다. 상징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충분한 활용, 홍보를 통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 소나무, 진달래 뿐만 아니라, 당진시 캐릭터, 심벌마크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당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재정비하고 상징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우리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전방위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

질문내용 ▶ 당진시의 가로숲 조성을 분석하면, 20여개 이상의 많은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가로수 수종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등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제환경국) 답변내용 ▶ 가로수는 그 도시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진시 특색을 잘 나타 낼 수 있는 수종선정은 우리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진천변 벚나무길은 봄철 벚꽃놀이를 하려는 시민과 관광객 등 상춘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며, 2016, 2017년도에 왜목마을에서 마섬포구까지 겹벚나무 904본을 심어 가로수를 조성한 장고항 해안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갱신 및 신규조성 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당진시도시립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숙 의원

질문내용 ▶ 당진시복지타운에는 19개 기관·단체가 입주해 있고 155명의 직원이 상주하는데, 주차장은 152면에 불과하며, 임시주차장은 비포장 노면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복지타운 주변 주차계획은 무엇인지?

(문화복지국) 답변내용 ▶ 복지타운은 차량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많아 부설 주차장 154면만으로는 부족하여 외부 임시주차장으로 150면을 마련하여 총 30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2년 예정인 계림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주차장 시설물을 반영하도록 하고, 주차타워 설치를 검토하여 복지타운의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그 전에 먼저 주차난 완화와 더불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복지타운 직원차량 5부제를 운영하고 인근 주민의 장기주차를 단속할 계획이며, 임시 주차장의 노면굴곡 등으로 이용하기 불편할 경우 보완공사를 하는 등 주차문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윤명수 의원

질문내용 ▶ 농산물 시장은 향후 전면 개방에 따라 신제품 개발을 통한 특화 작물육성 없이는 우리 농업은 거대한 세계시장에 밀려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진시의 지역의 특화작물 개발과 육성에 대한 계획과 향후 우리시의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 답변내용 ▶ 당진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새롭게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별로 신평 상추, 순성과 함덕에 딸기, 대호지 칸탈로프멜론, 고대 아스파라거스, 석문 민들레와 고들빼기, 송악 생강과 둥근마, 송산 왕대추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 특화작물 개발과 육성을 위해 사인머스켓, 토속작물인 머위, 구아바, 사과대추, 기후변화 대응 체리, 생강, 참외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도 품목을 발굴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등 협의체 구성 및 스마트팜 등 기술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하여 지역대표 특화품목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업 체질개선과 농업경영체 역량 제고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양기림 의원

질문내용 ▶ 완주시 로컬 푸드 매장에는 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로컬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각 읍면동의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삼인샵 매장형태로 일부 농산물만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고 품목도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과 중복되어 판매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로컬 푸드 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답변내용 ▶ 2021년 로컬 푸드 인증제를 도입하여 납품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로컬 푸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와 직매장 이용 고객 관리를 통하여 로컬 푸드 직매장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컬 푸드 납품 농가에 품목 다양화, 소량 생산 방식을 유도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관내 로컬 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 대상 조직화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시내권 로컬 푸드 직매장 신설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영 의원

질문내용 ▶ 서해안복선전철 합덕 101호 정거장이 2022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역사가 들어서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투어를 할 수 있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 개설이 시급해 보입니다. 101호 정거장 준공 이전부터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 계획은?



(건설도시국) 답변내용 ▶ 현재 2022년 준공 예정인 서해안 복선전철 진입도로는 연장 754m로(폭 14m~20m의 2차선으로 계획) 인도는 폭 2m, 자전거도로 폭 1.65m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도3호선 인도 종점인 서야 중고등학교 앞에서 역사 진입도로의 인도까지는 약 360m 추가 인도설치공사가 필요하며, 한국철도공단에서 시도3호선의 가감속 구간인 약 260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잔여구간(100m)에 대해 한국철도공단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며, 미반영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

질문내용 ▶ 당진시의 경우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후문과 통학로가 정비되고 등·하교 시 학원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원당초등학교와 합덕초등학교는 후문이 없거나 정비되지 않아 정문 앞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등하교시 위법이 자행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원당초등학교와 합덕초등학교에 학원차량 대기 공간 확보와 후문의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건설도시국) 답변내용 ▶ 합덕초등학교는 학교 정문앞 교육청 부지를 활용한 승하차 구역 조성 방법과 후문 도로개설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우선 정문 앞 교육청 부지와 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진·출입로를 조성함이 최선의 안으로 검토되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코자 하며, 대안으로 합덕초등학교 후문 미개설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당초등학교는 검토결과 정문앞 기존 도시계획도로에서 승하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는 불가하여 학교부지에 있는 교직원 노상 주차장을 활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임종억 의원

질문내용 ▶ 환경부 로드맵에는 2025년까지 수소차 보급을 20만대, 충전소를 450개소로 늘리겠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당진시는 수소차 27대만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수소차 보급이 저조한 것은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충전인프라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포기한다는 불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차, 버스에도 수소차 보급이 확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진시의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계획은?



(경제환경국) 답변내용 ▶ 우리시는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현재 송산2일반산업 단지 내 수소충전소에 대하여 지난 12월 1일 민간개방에 개방되어 상업운영에 들어갔으며, 금년 10월에 유치된 하이넷 당진 수소출하센터 준공과 병행하여 2021년 3월 국도32호선 당진방향 1개소, 행담도 휴게소 1개소 등 당진시 내 3개소의 충전소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 및 기타 방안을 통하여 수소산업의 여러 모빌리티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종윤 의원

질문내용 ▶ 당진에는 산림 뿐 아니라 절대농지 지역마저도 염해지로 지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이득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축하려 하고, 간척지에는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경제환경국) 답변내용 ▶ 그동안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관계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적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사업계획에 명확히 반영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 설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거쳐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 이행함으로써 생태계 및 경관 훼손, 재해 유발 등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지 복구의 현실화를 위해 빈틈없는 복구 계획서 검토와 이에 상응하는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함은 물론 향후 농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시 자체적으로 토양 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못 미치는 농지는 재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상연 의원

질문내용 ▶ 당진시에는 자전거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시급히 길 가장자리구역을 정비하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방법은 도심에 인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방법뿐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국) 답변내용 ▶ 시내구간 자전거도로 대부분은 인도와 겸해서 이용하는 겸용도로로서 인도와 분리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차로 폭을 줄여야 하거나, 주변 사유지 및 건물 보상 등이 필요하여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한 별도의 자전거도로 개설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에 맞추어 자전거 등의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이용자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의원

질문내용 ▶ 우리 당진에도 육지에 둘레길은 있지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해안 둘레길 트레킹 코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실성 있는 당진만의 해안 트레킹 둘레길 코스를 개발할 계획은 무엇인지?

(문화복지국) 답변내용 ▶ 삼교호관광지를 기점으로 맷돌포구를 거쳐 해오름카페까지 약5km로 현재 접근로가 맷돌포구까지는 마실길로, 해오름카페까지는 해안 제방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 해안트레킹 코스 개발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주변 가로수와 조경,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고항 부근은 왜목마을과 장고항 일대의 해변가로 트레킹코스 개발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현재 등산로가 없어 신규 개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 등을 통하여 등산로를 개설해야 하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해안데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예산투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재 의원

질문내용 ▶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도시국) 답변내용 ▶ 첫째, 당진시는 당진경찰서와 협조하여 교통사고사망자 발생 지점 83개소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개소에 현장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시설(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사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 등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 관내 총 사업비 1,134백만원을 투입하여 25개소의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셋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심지를 운행하는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키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키로로 하향 조정하는 5030 안전속도 저감사업을 통해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기림 의원 5분 발언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학교 CCTV 연계 운영 촉구

당진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방법, 교통·주차단속, 쓰레기무
단투기 단속 등 다양한 목적으

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유사 시
경찰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입니다.

2019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선진국 사례연구 보고에
의하면 CCTV 설치 지역은 미설치 지역에 비해 범죄발생이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학교 주변 안전취약구역의 CCTV를 연계하고
방과 후 등 안전 취약 시간대에 CCTV를 집중 관제해 필요 시 긴급
신고 및 유관기관에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야 합니다.

우리 당진시 학교에 설치된 CCTV의 수는 초등학교 31개교에 505
대, 중학교 14개교에 251대, 고등학교 8개교에 313개가 있는데, 당진
시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당진시는 하루빨리 각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 내 CCTV를 교육기
관과 협업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과 전후
주요 사각지대를 관제하여 사건·사고에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진시와 당진교육청, 경찰서 등에서 가장 우선시해
야 할 과제입니다.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CCTV와의 연계 통
합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김명희 의원 5분 발언

군부대 이전사업 촉구

우리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군
부대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신
축되면서 군사시설 내 각종 보
안시설과 훈련 상황이 노출되어 보안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
으며, 사격 훈련 등에 따른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승격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원당, 수청동 지
역으로 편중 개발됨에 따라 군부대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2015년 5월 20일 국방부와 조건부 승인의 합의각
서를 체결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6년 12월 26일 『국
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의 개정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이후 정부에서는『국방개혁 2.0
국방운영 분야』에서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시설을 정
리·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진시는 2018년도 군부대 이전사업 재추진 방안 검토 이후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재까지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조속히 군부대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민간 투
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당진시의 고른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여야합니다.



최연숙 의원 5분발언

당진시 가족성통합상담센터 운영방안 공론화 촉구



여성가족부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충남15개 시군 성평등지수 분석결과 충청남도
치단체 하위권, 당진시는 충남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진시 성평등지수가 낮은 원인을 살펴보니 여성의 폭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운
영되는 기관이 가족성통합상담센터 단 1곳 밖에 없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진시 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을 최소한 1곳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에는 5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족성상담통합
센터 1개소가 전부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 상담소는 보조금집행의 문제로 인해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이 불투명하고, 행정에서는
이 공백을 임기제 인력을 채용하여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여성계의 의견을 수
렴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당진시는 시에서 유일하게 성폭력 상담소를 책임지는 소장와 상담원을 임기제로 채용하여 인력만 채우겠다는
형식적인 탁상행정이 아닌 거버넌스를 통해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진시 가족성통합상담센터가 우리 시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적 장치와 여성인권, 권익보호, 젠더폭력 근절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상연 의원 5분 발언

당진의 교통정책 제안

당진시는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당진시민들도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당진시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은 많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쉽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실천방법이 바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진은 자가용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도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시는 자가용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의 확충과 혁신적인 노선변화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대중교통 체계는 자가용의 과다한 운행과 도로 신설, 확포장 그리고 주차장 설치를 끝없이 요구합니다.

당진시의 전체 버스 노선을 보면 당진시내를 중심으로 부챗살처럼 퍼져 있어 시내를 거치지 않고서는 인접한 읍면으로도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진시의 대중교통 노선은 부챗살형에서 네트워크형의 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서 캐러반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의 여행 트렌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과 대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한적한 곳에서 캠핑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진에도 캐러반이나 트레일러 등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캠핑용 차량 등은 사용이 빈번하지 않아 장기간 주차되고 파손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곳에 주차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등의 관리가 용이한 곳의 주차면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진시의 아파트 등의 인근의 도로는 캠핑용 차량에게 주차공간을 빼앗긴 승용차들이 밤낮으로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2월10일자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킥보드가 인도와 자전거 도로로 다니다 사고가 나면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도나 인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제 차도나 인도와 구분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당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캠핑용 차량 등의 주차문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전거 등록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제,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을 강구하여 에너지 절감과 함께 시민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5분 발언

석문국가산업단지 불산공장 입주 반대



불산액체는 사람 피부에 닿으면 인체에 침투하여 혈액과 뼈, 심장에까지 피해를 입힙니다.

또한, 호흡기가 장기간 불산 기체에 노출된다면 그 사람의 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불산을 생산하는 램테크놀러지라는 업체가 충남 금산의 불산공장을 석문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난12월 10일 당진시에 약 12,000㎡가 넘는 규모의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2년 9월에 있었던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작업 노동자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기억한다면,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누출된 가스는 주변 농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축을 죽음으로 내몬 것으로 모자라, 순식간에 5명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1만 여명이 넘는 소방관, 경찰, 인근 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쳤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금산에서 2013년 이후 3년 동안 네 번이나 불산 누출사고를 일으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때마다 안전대책을 약속했습니다만 그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6년에 공주 탄천산업단지로 이전하고자 토지매입 및 입주계약을 하였으나 공주시청과 시의회,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계획이 철회, 백지화 되자 이제는 우리 당진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공주시의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의 가족과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의회와 시민들, 집행부가 똘똘 뭉쳐 적극 백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지하지 못하고 불산공장이 석문국가산단에 입주한다면 기존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의 입주 기피가 확산 될 것이며, 이미 환경오염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당진시민은 다시 한 번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당진시민을 지키고, 당진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불산공장의 입주를 결사반대하며, 사업자가 주민에 대한 설명과 안전대책 강구 없이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행위를 반성하고 건축허가를 철회하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당진시가 법적 요건만이 아닌 업체의 사고 이력,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 산단 운영에 미칠 악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의 건축허가를 반드시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77회·제79회 임시회 및 제78회 제2차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 의 안 : 총42건(조례안25건, 동의안13건, 예산안2건, 계획안1건, 결의안1건)
- 처 리 : 원안의결31건, 수정의결11건

처리 구분	의 안 명	발의자	처리 결과	처리 구분	의 안 명	발의자	처리 결과
조례안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최연숙의원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수정의결
조례안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진시장	수정의결
동의안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장	수정의결
조례안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장	수정의결	조례안	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장	수정의결
동의안	2021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동의안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동의안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당진시 포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동의안	2021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동의안	2021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장	수정의결
조례안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동의안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수정의결	계획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진시장	수정의결
동의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동의안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수정의결	동의안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동의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 재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조례안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안	당진시장	원안의결	예산안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당진시장	수정의결
조례안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당진시장	수정의결	결의안	송산 가곡리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반대 결의안	윤명수의원 외 12명	원안의결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마스크 착용하기 · 자주 손씻기 · 사람많은 곳 가지 않기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당진시의회
DANGJIN CITY COUNCIL